

# 새로운 경지 보여준, 이병헌의 끝없는 불안과 강박적 믿음 사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김영탁 역 맡아  
"보여준 적 없는 얼굴" 연기력 찬사 이어져  
이병헌 "관객 보기 전까지 너무 불안했다"  
"연기는 결국 주관적 표현...확신 힘들어"  
"내 연기에 대한 의도적인 믿음이 필요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배우 이병헌(53)이 도달한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다. 그가 연기를 잘한다는 건 어쩌면 하나하나 한 얘기. 이병헌의 연기력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의 연기는 요즘 말로 하자면 '디플트 값'이다. 놀라운 건 높을 대로 높아진 이병헌 연기에 관한 평가 기준을 그가 넉넉하게 뛰어 넘는다. 이병헌은 1991년 데뷔해 30년 간 영화·드라마 60여편에 출연했다. 이제 그의 연기에 새로운 게 없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이병헌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관객 앞에 선다.

김영탁. 이병헌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맡은 인물이다. 난데 없이 등장해 번잡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 그는 얼떨결에 주민 대표가 된다. 서울에 대지진이 발생한 뒤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건물인 황궁 아파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했고, 묘한 생존력을 보여준 김영탁에게 의지한다. 리더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김영탁은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 권력자의 카리스마를 갖춰 가고, 체제 유지 위해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전진한다. 그러나 김영탁 체제 황궁 아파트는 그의 광기와 불안 사이에서 점차 무너져내리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김영탁은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그리는 세계 그 자체인 인물. 이병헌은 위선과 위악을 수시로 오가며 관객에게 김영탁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이병헌은 자신의 연기에 대해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런 극단적인 감정을 보여줬을 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객이 내 정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병헌은 배우로서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어떤 인물을 만나든 그 캐릭터를 이해하고 인물이 처한 상황 속으로 빠르고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해라는 건 결국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에 불안하다고 했다. "어떤 때는 모자르게 보여

준 건 아닐까, 어떤 경우엔 과하게 보여준 게 아닐까 확신이 안 서요. 이번 영화가 그랬어요. 몇몇 장면은 감독님의 디렉션이 조금 과한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감독님이 생각한 방향에 결국 동의했고 그렇게 연기했죠. 하지만 관객이 제 연기를 보고 그게 맞다고 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이병헌은 그러면서 김영탁이 그의 정체기 탄로나면서 극이 절정으로 치닫는 대목에 관해 설명했다. 이 시퀀스에서 김영탁은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에 관해 약에 발친 말을 쏟아낸 뒤 헛구역질을 하기에 이른다. 김영탁이 절규하는 이 장면은 아마도 김영탁이라는 사람, 그리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요약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병헌은 "내가 하는 연기가, 감독과 스태프의 선택한 이 연기가 맞다고 믿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믿어야죠. 제 연기가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내 연기가 맞을 거라고요."

이병헌은 자기 연기를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고 했다. 믿을 수밖에 없기에 믿어야 한다고 했다.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면 다음 연기를 할 수 없다. 계속 불안해하면 캐릭터를 온전히 그려낼 수 없다. "그 믿음이라는 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겁니다. 관점을 거르고, 맞을 거라고 여기는 거죠. 글썽요, 제가 제 연기를 믿을 수 있게 된 어떤 순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제 연기를 본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 판단이 맞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



복되면서 제 연기에 관한 믿음이 조금씩 쌓였을지도 몰라요." 그는 "김영탁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쳤다"고 말했다. 이어 "영탁에게 져서 4~5개월 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콘크리트 유토피아' 공개 후 어김 없이 이병헌 연기에 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병헌이 이전 작품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눈빛, 표정, 얼굴을 보여줬다는 것. 우스개소리로 '안구를 갈아끼웠다' '얼굴을 갈아끼웠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병헌은 연기를 할 때 자기 얼굴

이 어떤 상태일지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기를 하고 나니까 그런 모습이 하고 있더라는 얘기였다. "저도 제가 그렇게 연기하길 몰랐어요."

"이 지점에서 내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혹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겠다, 같은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건 순서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거울을 보면서 연기 연습을 할 수는 없죠. 껌데기를 옮긴 후에 내면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죠. 내면이 움직이면 껌데기는 어떻게든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저도 제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웃음)"



## 캠버리 구원투수 'K팝 콘서트' 시청률 10.9%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캠버리대회'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구원투수가 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시청률이 10%를 넘겼다.

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KBS 2TV를 통해 생중계된 '캠버리 케이팝(K-POP) 슈퍼 라이브 콘서트' 1·2부 시청률이 7.9·10.9%를 기록했다. 평일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숫자다. 해당 공연을 라이브로 중계한 KBS월드 유튜브 채널은 최고 동점자수 12만 명, 누적 조회수 91.5만을 기록했다.

예초 지난 6일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캠버리 슈퍼 라이브 콘서트'는 불과 행사 3일 전에야 장소가 확정됐다. 장소

와 시간 및 MC, 출연진이 전부 바뀌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KBS 2TV '뮤직뱅크' 제작진이 투입됐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마지막까지 개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리허설과 무대 및 장비 설치가 당일 이뤄졌다. 예보보다 늦게까지 이어진 비로 인해 출연진과 제작진의 무대 진행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NCT드림, 마마무, 뉴진스, 아이브, 서누·형원(몬스타엑스), 강다니엘, 더보이즈, 이지, 제로베이스원, 권은비, 조유리, 홀리뱅, 싸이커스, 피원하모니, 리베란테, ATBO, 카드, 프로미스나인, 더뉴시스 등 총 19개 출연팀과 제작진의 열정·노련함으로 4만여 관객을 열광시켰다.

## 뉴진스·트레저, 韓·美·日 한터 차트 1위



그중 '뉴진스(New Jeans)'와 '트레저(TREASURE)'가 한터차트 8월2주 차 국가별 차트에서 인기를 입증했다.

한터차트가 11일 공개한 최근 국가별 차트 집계 차트(7월31일~8월6일)에서 최근 컴백한 트레저가 일본 1위를, 뉴진스가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해 2관왕을 거머쥐었다. 또한 뉴진스는 중국에서 2주 연속 1위에 올라 인기를 과시했다.

매주 금요일 발표되는 국가별 한터차트는 각 국가별 음반, 음원, 소셜 포털 데이터 등 케이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된 종합 차트다.

## 스페인·남미서 활약하는 K코미디언...유튜버 코미꼬

서울대 나와 개그콘서트에도 출연했던 코미디언

전 세계 수억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인 스페인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코미디. 이 둘을 합친 콘텐츠는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해 성공을 가져다줄 것만 같다.

이런 꿈을 갖고 지난 2018년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 현재 85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있다.

바로 스페인에서 동양인 최초로 아마추어 코미디 무대에 섰다고 스스로 말하는 남자, 코미꼬(35·본명 김병선)다.

"올라(Hola), 케 탈(Que tal) 코미꼬입니다! 저는 스페인어로 이것저것하는 한랑입니다"

코미꼬의 주 콘텐츠는 스페인어 및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생활을 소개 그리고 외국인과의 화상채팅 하는 영상이다. 최근에는 멕시코에 정착해 여러 사람을 만나며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코미꼬 채널에 게재되는 여러 영상은 높은 수위를 자랑한다. 우리나라보다 개방적인 스페인 문화권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점이 시청자들에게는 코미꼬 채널만의 매력으로 다가왔다.

일례로 그가 멕시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나 스탠드업 코미디를 진행할 때, 성적인 이야

기가 빠지는 법이 없었고,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유쾌한 듯한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고 그의 영상에 웃음이라는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화권에 관한 이야기도 전한다. 또 여행지에서는 그만의 팁도 전수해 준다.

인종차별 대처법에 묻는 시청자들의 질문에 그는, "치노(중국인을 뜻하는 스페인어)라는 말이 과연 인종차별일까. 비하보다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모르고,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며 "모르면 알려주면 된다. 화를 내면 오히려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적으로 돌변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문화 전문가로 보이는 코미꼬는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체육교육학을 전공하고 KBS 28기 공채 개그맨으로 방송에 입문한 코미디언이다.

단 한 번도 전문적으로 스페인어를 배운 적도 없다고 한다. 이런 코미꼬가 돌연 스페인어로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국제협력봉사자원으로서 페루에서 활동한 경험 때문이다. 이 기간에 스페인어에 대해 전혀 모르던 코미꼬는 실생활 스페인어를



익혔고, 스페인과 스페인 문화권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당시 경험을 살린 코미꼬는 스페인으로 넘어간 코미꼬는 본격적으로 스탠드업 코미디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코미꼬는 '스페인에서 동양인 최초로 아마추어 코미디 무대에 선 남자'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이후 '스페인 갓 탤런트'의 예선을 통과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코미꼬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지난 2019년 11월에 게재한 '외국인이 날 중국인이라 부를 때 필살기 5가지'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영상에서 그는 고등학생들에게 그가 해외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들려줬다.

해당 영상은 현재 699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 브래드 피트·앤젤리나 졸리, 7년 이혼소송 끝...승자는?

7년 간 벌인 이혼 소송, 피트의 승리로 종결



'브란젤리나'로 불리며 '세기의 커플'로 통한 명의로 2840만 달러(약 372억원)에 사들였다.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60)와 앤젤리나 졸리(48)의 이혼소송이 7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10일(현지시간) '인 터치 위클리' 등 미국 미디어에 따르면, 피트와 졸리가 7년 간 벌인 이혼 소송은 피트의 승리로 종결됐다.

이들 이혼 소송의 최근 화두는 와인 포도밭이었다. 피트는 이 포도밭 보유 지분을 매각한 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이어가면서 이 매각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졸리와 피트는 2005년 영화 '미스터 앤드 미세스 스미스'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2008년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포도밭과 와인 사업 지분을 공동

투 사람은 2014년 이 포도밭에 달린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졸리가 포도밭 지분을 러시아 사업가 유리 셰플러에게 팔면서 문제가 됐다. 피트는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졸리가 최근 이 소송의 해결을 위한 중재를 받아들여기로 한 것이다.

외신들은 "졸리가 양육권 싸움을 비롯 법정 싸움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 더 이상 법정 다툼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트에게 큰 승리"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 비용은 전문학적"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앤젤리나가 계류 중인 다른 문제에서도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입양 등을 통해 여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졸리가 18세 미만 아이들의 1차 양육권을 갖고 있고, 피트는 방문권을 얻는다.